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2023년 지역경제 공동세미나 개최 결과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본부장 홍철)는 12월 1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과제」를 주제로 광주상공회의소,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와 함께 지역경제 공동세미나를 개최
 -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은행 박범기 과장이 「광주전남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를, 전남대학교 서일원 교수가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지역산업 구조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발표
 - 첫 번째 발표에서는 지역 내 청년고용이 부진한 원인을 분석하고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하였고, 두 번째 발표에서는 지역 산업구조와 고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고용회복력을 높이는 신성장산업 육성 방향을 제시
 - 지정 토론에서는 이찬영(전남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이후형 본부장(광주상공회의소), 김수현 교수(전남대학교), 한경록 실장(광주연구원) 및 강정미 팀장(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
 -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였다고 평가하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복합 쇼핑몰 유치 등 정주여건과 KTX 및 대중교통 확장 등 교통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AI 국가 데이터 센터 등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적극적으로 청년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

“주요 내용은 (붙임) 참조”

문의처 : 경제조사팀 과장 김지은

Tel : (062)601-1074 Fax : (062)382-8164 E-mail : gwangju@bok.or.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의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gwangju>)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붙임)

지역경제 세미나 주요 논의내용

주제발표

1. 광주전남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광주전남본부 박범기 과장)

□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일자리 현황을 분석하고 세부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방안을 제시

* 마이크로데이터를 사용하여 광주전남지역을 세분화(광주, 전남서부, 전남중부, 전남동부)하고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제시

○ 광주전남지역은 전 연령대 고용률과 실업률은 전국 상위권이나 청년 고용률이 하위권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능력이 높지 않음에 기인

□ 광주전남지역의 청년인구 유출은 고학력,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인프라와 주요 일자리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

○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청년층 인구의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 인프라의 미비(15~20세)와 좋은 일자리 부족(23~25세)과 밀접하게 연관

○ 제조업에 대한 비선호로 인하여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제조업을 지원할 경우 청년고용 문제 해결이 어려움

□ 광주전남지역 청년의 고용현황을 살펴보면, ①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② 높은 청년실업률 ③ 청년층 일자리 부족 ④ 미스매치 발생 등의 문제가 존재

○ ①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광주와 전남동부는 경험 및 교육수준 부족이, 전남중부및 전남동부는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주요 원인

- ② (높은 청년실업률) 청년실업률이 높으며, 지역별로는 고학력 실업자(광주·전남동부)와 공학계열 실업자(전남동부·전남중부) 등의 상이한 양상을 보임
 - ③ (좋은 일자리 부족) 종사상 지위상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으며, 임금수준으로 보면 고임금 근로자 비중이 낮고, 서비스업 중 고부가가치 직종 비중이 낮게 나타남
 - ④ (일자리 미스매치) 고소득 직장이 적으며 근로시간이 길게 나타나고 있음
- 광주전남지역 청년고용 부진원인은 ① 지역경제 역동성 저하 ② 낮은 일자리의 질 ③ 성장과 청년고용 간 연결 약화 ④ 낮은 수준의 정주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
- ① (지역경제 역동성 저하) 광주전남지역의 성장 잠재력 하락이 일자리 창출여력을 감소시키며 경제의 혁신성, 역동성 저하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
 - ② (낮은 일자리의 질) 저숙련 직업의 비중이 높고 고용안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5인 미만 소규모 업체의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근로시간도 36시간 미만(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음
 - ③ (성장과 청년고용 간 연결 약화) 경제성장률과 35세 미만 청년 취업자수 증가율 간 상관관계가 미미한 상황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산업적 특성(경기 민감업종 多)을 고려하면 기업들이 고용안정이 보장되는 정규직 채용유인이 감소함
 - ④ (낮은 수준의 정주여건) 광주는 정주여건이 전국 평균을 소폭 상회하나, 전남은 하위그룹 수준으로 수도권 접근성 및 교육 의료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존재
- 광주전남지역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① 지역 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육성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건 개선 ③ 정주여건 개선 ④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제시

- ①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산업 육성) 지역특화산업 (광주 - 미래형 자동차, 전남 - 스마트 농림어업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늘리고 신산업 유치시 이러한 강점을 활용
- ② (노동시장 이중구조 여건 개선)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을 강화하고, 1차 노동시장의 상생형 일자리를 구축
- ③ (정주여건 개선) 정주여건 개선이 없는 신도시의 경우 청년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으며, 이를 위해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자체 투자와 민간 참여 등을 유도
- ④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산업구조의 전환을 위해 광주는 높은 수준의 지역대학을 바탕으로 연구업 등을 강화, 전남은 보건업 확장에 대비하여 국립의대 등을 유치

2.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지역산업구조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서일원 교수)

- 지역 산업구조에 따른 고용 회복탄력성을 분석한 결과, 동류성과 결집성이 높은 산업구조일수록 외부 충격으로부터 고용이 빠르게 회복되는 특징을 보임
 - 네트워크 이론에서 동류성이 높은 산업구조란 핵심 산업*들이 강하게 상호 연결되어 있어 특정 산업의 기능이 제약된 상황에서 네트워크 내 자원으로 유연하게 대체 가능한 구조를 의미
 - * 지역산업 네트워크에서 핵심 산업은 중심성이 높아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하며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하위 산업들이 네트워크 외곽에 연결
 - 결집성이 높은 산업구조는 산업간 거래관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자원이나 공간, 물자와 인력의 대체 연결경로가 다양하게 갖춰진 구조를 의미
- 광주의 경우 핵심 산업간, 핵심 산업 내 하위 산업간 상호 연결 정도가 모두 높은 편으로 외부 충격에 대한 고용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광주는 자동차, 전자부품, 기계, 철강 등 11개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들 산업은 자동차와 전자산업, 2개의 중심축이 후방 지원 산업인 철강, 기계 및 부품 산업 등의 근간을 이루는 동류성이 높은 구조로 산업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산업간 연결성을 나타내는 결집계수도 2.23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음
- 전남의 경우 상호 연결된 핵심 산업의 수가 적고 산업 내 상·하위 분야 간 연결성도 낮아 외부 충격에 대한 고용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남은 금속제품 제조, 금속가공, 기계제조 및 선박제조 4개 산업만이 산업구조 네트워크 상 핵심 산업으로 도출
 - 결집계수도 1.17로 전국 광역시·도 중 여덟 번째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음
- 분석 결과를 감안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고용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성장산업을 기존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여타 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육성할 필요
- 광주의 경우 인공지능 산업의 생산물이 자동차, 전기장비,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중간재로 투입되어 결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
 - 전남은 탄소중립정책을 통해 석유화학 분야와 융합할 수 있는 기술기반 스타트업 등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기존의 핵심산업과 동류성과 결합성을 높여나갈 필요
- 또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강화, 정주여건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
- 광주의 경우 핵심 산업간 연관성이 높은 구조를 지니고 있어 핵심 산업 인력간 전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브릿지' 프로그램 등을 마련

- 스마트 팩토리 기술의 현실화, 내연기관의 전동화 등과 같은 전환적 기술의 등장에 따라 기존 지역 산업에 종사하던 인력에 대한 재교육, 재취업 지원 등의 필요성이 높아짐
- 외부 충격시 지역 노동력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이 시급하며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 내 주력 산업 보호를 위해 정주여건을 개선방안을 마련한 좋은 사례로 평가됨

지정토론

- 지정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이 지역 내 고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 금번 주제발표를 통해 ‘고용’이라는 주제를 청년층 입장, 산업간 네트워크 구조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었으며, 지역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 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 논의할 수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였다는 평가
 -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기존 산업 확장뿐만 아니라 신성장 산업 육성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공감하며,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정주여건과 교통편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 일부는 광주를 노잡도시, 은퇴자들을 위한 Slow city로 여기며 지역 내 청년들은 문화생활을 수도권에서 주로 이용하는 행태를 보여 지역 내 복합쇼핑몰 등 문화공간을 유치할 필요
 - 또한 경상권에 비해 호남권으로 오는 교통편수가 적으며 광주 송정역에서 전남대, 첨단지구 등의 이동 또한 쉽지 않아, KTX 및 대중교통 확장 등의 노력이 기울일 필요
 - 광주형 상생 일자리인 GGM, AI 국가 데이터 센터, 미래차 국가 산단 등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시
 - 수도권에 견줄만한 인프라 마련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쉽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홍보하여 외부지역으로의 유출을 막을 필요
 - 한편 주제발표가 제조업 중심으로 국한되다 보니, 창업*과 서비스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지역고용 활성화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
- * 광주시는 광주역 부지를 활용하여 2027년까지 스타트업 창업밸리를 조성 중이며,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기업혁신성장센터, 일자리연계형주택 등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서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

<세미나 주요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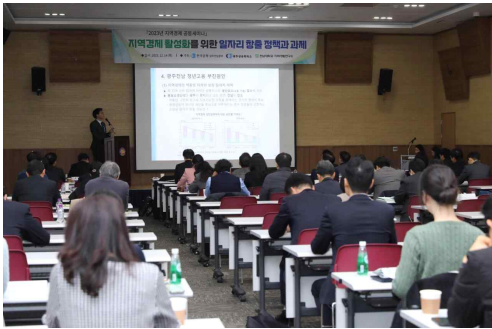
개회사



축사



주제발표1



주제발표2



지정토론



기념촬영



2023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광주상공회의소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지역경제 공동세미나 개요

- 주 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정책과 과제
- 일 시 : 2023.12.14(목), 10:00~12:00(2시간)
- 주 최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 장 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208~210호

▶ 프로그램 ◀

시 간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10	개 회 - 개회사 : 홍 철(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 축 사 : 강기정(광주광역시장) 최종만(광주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배정환(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장) - 진 행 : 김지은(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
I. 주제 발표	
10:10~11:00	- 사회자 : 이찬영(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광주전남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박범기 과장) -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탄력적인 지역산업 구조에 관한 연구(전남대학교 경제학부 서일원 교수)
11:00~11:10	휴 식
II. 지정토론 및 질의응답	
11:10~12:00	- 토론자 : 이후형(광주상공회의소 기획조사본부장) 김수현(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한경록(광주연구원 첨단산업도시연구실장) 강정미(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경제조사팀장) - 질의응답
12:00~	폐 회